



歲月이 電光石火라 하듯이 어느덧 80년의 除夜의 鐘 소리가 餘韻을 남기고 81년 새해의 黎明이 밝았다.

季節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心身에도 軌道처럼 時時刻刻으로 膨脹하고 收縮하는 攝理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勇氣와 決斷과 精進이라는 牽引力을 갖고 있으므로 火災豫防에도 音聲의 리듬처럼 強弱과 軟硬의 힘이 絶實히 요청된다.

火災豫防은 國民 個個人的 精神狀態에 달려 있으며 安定과 秩序와 能率이 必須要諦로 되어 있어 警火意識 鼓吹가 무엇보다 時急하다고 하겠다

새 時代 새 歷史는 正直, 勤勉, 誠實을 바탕을 이루는 國民의 輿望에 副應하여 火災豫防 또한 優秀한 頭腦 卓越한 智慧 創意的인 技法이 一致할 때 비로소 實現되는 것이다.

오랜 陣痛과 刻苦끝에 制度化되는 防災研究 晚時之歎이나 이제부터라도 不斷한 研究과 꾸준한 努力을 기울려 名實相符한 民間防災機構로서의 使命을 다짐한다. <華>

### 火災安全點檢《年 2回刊》

(通卷 15)

登錄番號 바 520

登錄日 1973年 10月 11日

發行日 1981年 1月 1日

印刷日 1980年 12月 30日

非 賣 品

發行兼 曹 興 萬  
編輯人

印刷人 李 南 亨

發行所 社團 韓國火災保險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14

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

郵便番號 11510-□□

電話 (782) 8111~8125

(783) 2121~2135

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준수한다.